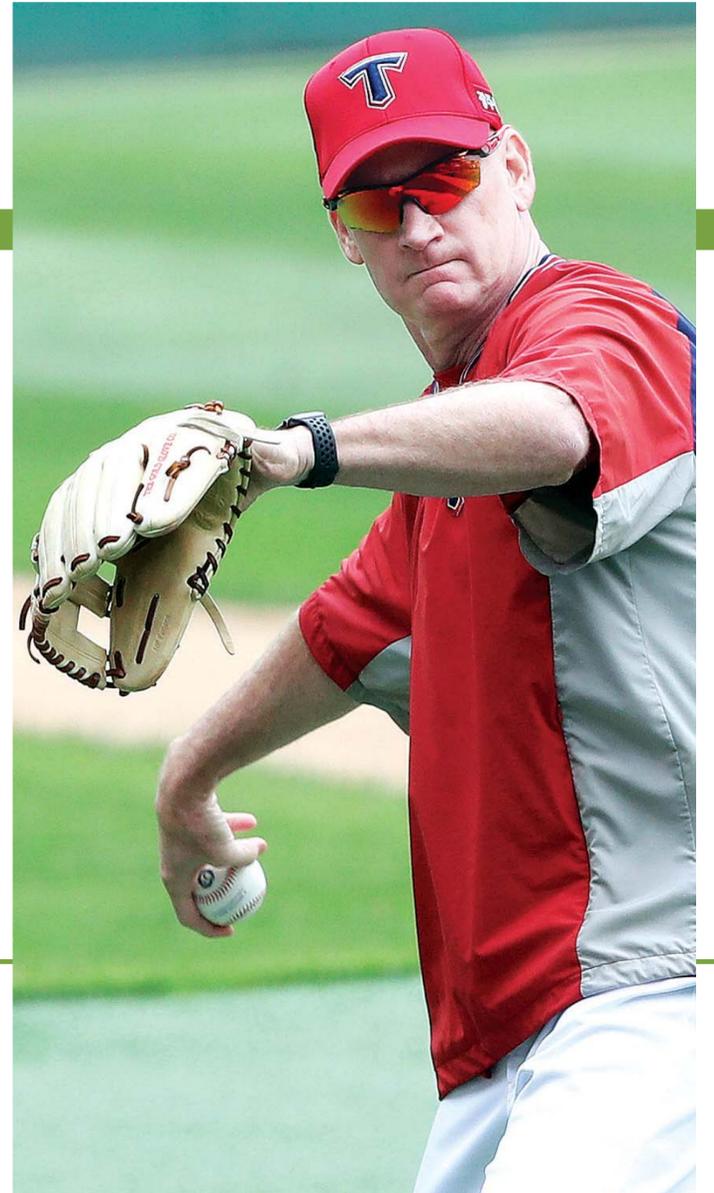


# “뭐 있어? 오늘은 오늘 경기 하는거지”

## KIA 윌리엄스 감독 '부상에 대처하는 자세'

'It is what it is!' (뭐 어찌겠어) 부상을 대하는 KIA 타이거즈 윌리엄스 감독의 자세는 "뭐 있어? 그냥 하는 거지"다. KIA 윌리엄스 감독은 수도권 원정 9연전을 마치고 16일 안방에서 새로운 한 주를 시작했다. 사령탑 입장에서는 한숨이 나오는 시작이다. 앞에는 1위 독주 중인 NC 다이노스가 기다리고 있고, 뒤를 돌아보면 부상이 진한 아쉬움으로 남아있다. KIA는 지난주 KT위즈와 SK와이브스를 상대로 연달아 위닝시리즈를 장식하며 4승 2패의 전적을 기록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부상자가 연달아 나왔다. 9일 KT전에서 김선빈이 허벅지 부상으로 주저앉았고, 14일 SK전에서는 김선빈을 대신해 엔트리에 등록됐던 류지혁이 허벅지 부상으로 쓰러졌다. 김선빈은 다행히 근육 파열은 파열지만 류지혁은 상태가 좋지 못하다. 왼쪽 대퇴부 이두근 파열 진단을 받으면서 오랜 시간 자리를 비울 전망이다. 기대했던 자원들의 부진 속에 좋은 모습을 보여 주던 선수들의 부상이 이어지면서 윌리엄스 감독은 원점에서 내야 구상을 하게 됐다. 특히 3루는 KIA의 속을 태우는 '핫코너'가 됐다. 어려운 상황에서 난적 NC를 만나게 됐지만 윌리엄스 감독은 'It is what it is'을 이야기했다. "뭐 어찌겠어"라는 의미로 뒤가 아닌 앞을 보면서

김선빈·류지혁 허벅지 부상 이탈 상위권 도약 기로에 난적 NC 만나 맷 감독 "어제는 못해도 오늘은 새 날 어쩔 수 없는 일에 매달리지 않아" 최정민·황대인 1군서 컨디션 점검 3루 수비 나주환...김선빈 복귀 조율 답을 찾겠다는 뜻이다. 윌리엄스 감독은 "(부상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좋은 시합대에 오르는 시리즈가 될 것 같다"며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전에 일어났던 것에 대해 걱정하지 말고 오늘 경기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할 수 있는 것을 하자는 말을 하는데 그 점을 생각하고 경기에 임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부상은 어쩔 수 없이 일어난 일이다. 윌리엄스 감독은 현재에서 답을 찾고 있다. 일단 류지혁을 엔트리에서 말소했고 발 빠른 내야수 최정민을 엔트리에 등록시켰다. 또 이날 황대인을 선수단에 합류시켜 컨디션을 점검했다. 3루수 자리는 나주환으로 채웠다. 윌리엄스 감독은 "나주환이 3루에서 선발 출장하게 된다. 앞으로 3루는 지켜보면서 어떤 선수를 기용할지를 정할 생각이다"고 언급했다. 김선빈도 천천히 지켜보면서 복귀 시점을 조율할 계획이다. 윌리엄스 감독은 김선빈에 대해 "지금 훈련은 하고 있는데 아직 느낌이 남아있다고 한다"면서도 "상태가 좋아지면 긴 시간 필요 없이 바로 라인업에 들어갈 수 있는 선수다. 지켜보면서 복귀 시점을 결정하겠다"고 언급했다. 고민은 쌓였지만 어제를 잊고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는 사령탑. 윌리엄스 감독의 이런 마인드는 선수들에게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주 두 경기 연속 홈런으로 눈길을 끌었던 오선우에게 윌리엄스 감독의 이야기가 큰 힘이 됐다. 오선우는 "감독님께서 '어제 못해도 오늘은 새로운 날이다. 어제 안 좋은 기억은 쓰레기통에 던지고 새로운 오늘을 임해라'고 말씀하신다"며 "그 이야기가 나를 포함해서 어린 선수들에게 정말 힘이 되는 것 같다. 매일 새로운 마음으로 자신 있게 하려고 한다"고 언급했다. 현실에서 답을 찾고 앞을 보는 윌리엄스 감독이 위기를 넘고 상위권으로 가는 '시합대'를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울 기자 wool@



# 적응 끝낸 광주, 하위권 대탈출 시작

'K리그1 7R' 오늘 홈에서 인천전 펠리페·김주공 등 막강 화력 수문장 이진형 선방쇼 '상승세' 인천 수비라인 뚫고 3연승 도전

공격력을 깨운 광주FC가 안방에서 3연승에 도전한다. 광주는 17일 오후 6시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인천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2020 K리그1 7라운드 홈경기를 치른다. 5월과 6월의 광주는 다르다. 연패에서 벗어난 광주는 4라운드 울산전 1-1 무승부를 시작으로 3경기 연속 무패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최근 두 경기를 승리로 마무리하면서 무패 행진을 이었다. 수원 원정에서는 경기 종료 직전 펠리페의 극강 골이 터졌고, 부산전에서는 선제골을 내주고도 3-1로 승부를 뒤집었다. 펠리페는 역전골을 장식하면서 두 경기 연속 결승골의 주인공이 됐다.

순식간에 승점 7점을 보탠 광주는 8위까지 뛰어 올랐다. 달라진 광주에는 '측면 스피드'가 있다. 4라운드 울산전을 시작으로 엄원상이 부상에 복귀했고, 윌리안과 김정환이 가세하면서 광주의 답답하던 공격에 활기가 살아났다. 엄원상은 시즌 개시 11분 만에 첫 골을 터트리며 반전의 판을 깔아줬고, 윌리안은 부산전에서 두 경기 만에 시즌 첫 골을 기록했다. 김정환도 김주공의 골을 도우면서 힘을 보탤다. 측면이 살아나자 펠리페의 '해결사' 본능도 폭발했다. 상대 견제에서 벗어난 펠리페는 두 경기 연속골로 지난 시즌 K리그2 득점왕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광주는 공-수의 밸런스를 찾으면서 K리그1 적응을 끝냈다. 두 경기 연속 승리의 주역이 된 펠리페도 "전체적으로 팀이 좋아졌다. 축구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서로 도움을 줘야 한다. 팀이 1부리그에 적응하면서 좋은 모습이 나오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빠르게 수비 안정감을 찾은 광주는 지난 시즌 리그 최소실점팀의 모습을 보이며 3경기 2실점 중이다. '수문장' 이진형도 선방쇼를 펼치면서 수비의

중심을 잡아주고 있다. 광주는 분위기를 살려 부진에 빠져있는 인천을 상대한다. 아직 승리가 없는 인천은 최근 4연패로 최하위에 머물고 있다. 개막 후 6경기에서 2득점을 기록할 정도로 화력이 좋지 못하다. 하지만 이재성이 부상에 복귀하면서 수비라인이 보강됐고, 지난 라운드에서는 전북의 막강한 공격진을 1실점으로 막아내기도 했다. 광주에 앞서 지난 13일 6라운드 전북전을 치른 인천 임원섭 감독은 14일 직접 광주를 찾아 전력 분석에 나설 정도로 연패 끊기에 고심하고 있다. 인천의 간절함과 탄탄한 수비라인을 뚫어야 광주의 3연승이 가능하다. 측면의 왕성한 활동량과 안정적인 중원 삼각편대(여름, 박준수, 최준혁)를 앞세운 박진섭 감독은 "주요 선수들이 부상에서 돌아오면서 팀의 밸런스가 살아났고 조지력도 함께 올라왔다"며 "어렵게 가져온 분위기인 만큼 철저히 준비해 경쟁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광주FC의 펠리페(왼쪽에서 두 번째)가 지난 14일 광주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부산아이파크와의 경기에서 역전골을 넣고 동료들과 환호하고 있다. <광주FC 제공>

# '200경기 출장' 광주 FC 여름 '베스트 11'

## K리그1 6라운드

200경기 출장 기록을 세운 광주FC의 '주장' 여름(사진)이 6라운드 베스트 11에 선정됐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이 16일 2020 K리그1 6라운드 6경기를 평가해 베스트 11을 발표했다. 지난 14일 안방에서 열린 부산아이파크와의 경기에서 출전한 광주 '주장' 여름이 미드필더 부문에 이름을 올렸다. 여름은 이날 중원을 조율하면서 팀의 3-1 역전승을 이끌었다. 이 승리를 통해 광주는 2연승과 함께 3경기 연속 무패가도를 달리고 있다. 또 여름은 부산전 출장을 통해 K리그 통산 200경기 출장 위업을 이뤘다. 지난 2012년 고



향팀 광주에서 데뷔해 이룬 '원클럽맨' 200경기 더 의미가 있다. 한편 6라운드 MVP는 상주전에서 2골 2도움의 맹활약으로 팀의 4-2 승리를 이끈 포항 스틸러스의 일류현에게 돌아갔다. 지난 4라운드에 이어 두 번째 MVP 선정이다. 상주와 포항전은 6라운드 베스트 매치로 꼽혔다. FC서울을 상대로 6-0 대승을 거둔 대구FC는 베스트팀에 이름을 올렸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이강인, 2년 연속 '골든보이' 후보

## 伊 스포츠지, 100명 명단 발표

한국 축구의 미래로 손꼽히는 이강인(발렌시아)이 2년 연속 '골든보이 어워드' 100인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이탈리아 스포츠신문 '투토스포르트'는 16일 홈페이지를 통해 2020 골든보이 어워드 후보 100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골든보이 어워드는 유럽 1부리그 클럽에서 뛰는 21세 이하 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해 가장 뛰어난 활약을 펼친 선수에게 주는 상이다. 투토스포르트가 2003년 처음 제정한 골든보이 어워드는 빌트(독일), 블리크(스위스), 아블라(포르투갈), 레키프(프랑스), 마르카(스페인), 마르카(스페인), 더 타임스(영국) 등 유럽의 주요 언론 소속 축구 전문가가 40명의 투표로 수상자를 결정한다. 2003년 라파엘 판데르파르를 시작으로 리오넬 메시(2005년), 세스크 파브레가스(2006년), 세르히오 아圭에로(2007년), 마리오 괴체(2011년), 폴 포그바(2013년), 라힘 스틸링(2014년), 킬리안 음바페(2017년), 마테이스 더리흐트(2018년), 주앙 펠릭스(2019년) 등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지난해 2019 국제축구연맹(FIFA) U-20 월드컵에서 한국 남자 선수로는 사상 처음으로 골든볼(최우수선수상)을 품은 이강인은 2019 골든보이 어워드 100인 후보에 포함돼 최종 20인 후보까지 이름을 올렸지만 아쉽게 득표에는 실패했다. 이런 가운데 이강인은 2년 연속 '골든보이 어워드' 100인 후보에 포함되는 기쁨을 맛봤다. 올해 후보에는 경쟁한 선수들이 많다. 특히 독일 분데스리가 무대에서 '괴물 골잡이'로 통하는 예링 홀란드(도르트문트)가 유력한 수상자로 손꼽힌다. 한편, 이강인의 소속팀인 발렌시아는 구단 SNS를 통해 2019 FIFA U-20 월드컵에서 골든볼을 차지한 이강인의 수상 1주년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올렸다. 이강인은 지난해 6월 16일 막을 내린 대회에서 7경기 동안 2골 4도움의 활약을 펼치면서 한국 남자 선수로는 처음으로 FIFA 주관 대회 골든볼을 들어 올리는 영광을 차지했다. FIFA도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해 대회를 되돌아보며 골든볼 수상자인 이강인의 근황을 전했다. /연합뉴스